

앞

으로 어항은 어업 관련 시설 외에 해양 관광 등 어업 외적인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와같은 다기능 어항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어항 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은 일본으로, 옛날부터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바다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본 전국 연안에는 약 7,000개소의 어촌과 3,000여개의 어항이 분포하고, 약 600만명의 인구가 연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공업화로 많은 연안역이 축소된 반면 소득 수준 증가로 마리너를 비롯한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3, 외국의 어항 개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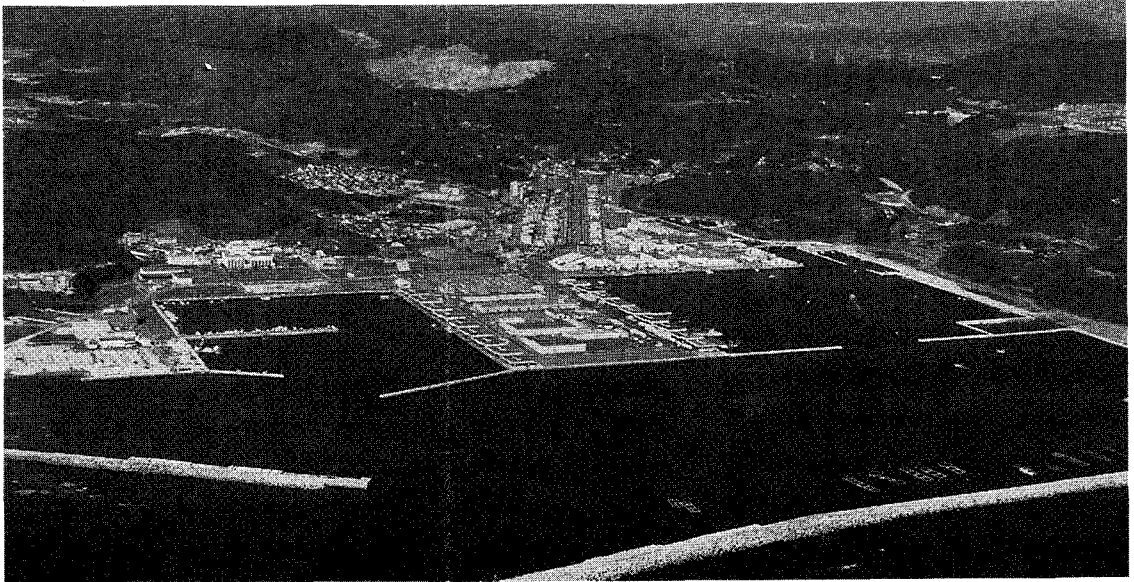
일본,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 부처·지방정부 함께 조율 프랑스에서도 연안역 종합관리

이에 따라 연안역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연안역의 고도 이용을 위한 각 부처의 협의·조정을 거친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1980년대 이후 속속 발표되었다.

또한 전국 각 지방의 주요 어항별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어항의 발전계획안에 대해서도 이미 지역별로 특색있는

어항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어항 개발 계획들은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연안 수역의 관리 방식, 어항의 입지, 그리고 어항 환경 등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항 개발 방향과도 흡사한 점이 많아 우리 나라 어항개발 방향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프랑스는 해안선이 짧아 어항과 항만, 해양 관광,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수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안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수역은 항만, 어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에서 해양성 레저와 관광 시설(마리너 시설 포함)이 잘 발달해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작은 어항이나 어촌 마을은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어항 어촌의 휴양 및 관광화를 목적으로 다목적 기능(어항, 상항, 요트항)의 항구로 변모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우리보다 연안역이 빈약하지만 좁은 공간을 어항, 레저 및 관광항 등으로 최대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금후

우리 나라에서도 소규모 어항이나 어촌을 새로 개발하려고 할 때 어업적 기능은 물론 관광·휴양 및 레저 기능 등 복합적으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로스엔젤리스 어항과 같이 대규모의 어항도 있지만 대부분 어항, 상항, 레저항의 기능이 통합된 곳이 많다.

또한 항내 수역이 다기능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이용상의 마찰이 없으며, 항내 수역의 수질이나 주위 환경은 매우 청결하게 유지·관리되

고 있다.

외곽·계류·수역·항로시설 등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육상 시설은 운영 회사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시설하고 어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기능 어항으로서 특히 유명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항으로서 이것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 노후화된 어항 시설을 재개발하여 어업과 관광의 접목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개발 방향은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로 확대되었고, 최근 미국의 연안이나 항만 개발은 어업적 이용보다는 레저나 스포츠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㉔